안동의 지혜로 키워가는 바른 인성

경외 (敬畏)

도산서원으로 배우는 경외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는 마음

학습 문제

경외의 의미를 이해하고

경외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그 이유를 표현할 수 있다.

학습 활동

활동 1

「도산잡영」
함께 읽기

퇴계 선생의 글에서
경외의 마음 찾기
(활동지 1)

활동 2

도산서원
살펴보기

배치도로 공간과
역할 이해하기
(활동지 2)

활동 3

나만의
경외 체험 미션

경외 장소 선정 및
활동 계획 세우기
(활동지 3)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한 적 있나요?

아주 거대한 자연 앞에 섰을 때



도입

경외(敬畏)란?

경(敬, 공경 경)　외(畏, 두려울 외)

나보다 훨씬 크고 오래된 존재나 자연 앞에서

존경과 두려움이 함께 드는 마음

감 탄



"예쁘다" / "아름답다"

자연에 즐겁게 감동하는 기분

vs

경 외



말문이 막히며 겸손해지고

숙연해지는 마음

활동 1 「도산잡영」 함께 읽기

안동에서 자연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글로 남긴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퇴계 이황 선생

- 조선 중기 대학자, 안동 출신
- 도산서당을 짓고 제자를 가르침
- 자연을 깊이 사랑하고 자연 속에서 학문 정진
- **자연을 '인격체'로 여기며 이름을 붙여줌**

「도산잡영」이란?

퇴계 선생이 도산서당을 완성하고, 주변 자연에 대한 감흥과 철학적 사색을 담아 쓴 시입니다.

그 시에 붙인 「도산기」는 도산서당이 완공된 기쁨과 주변 풍광을 예찬한 글입니다.

활동 1 「도산기」 함께 읽기

도산기」 를 읽고 퇴계 선생이 자연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찾아봅시다.

① 서당 동쪽에 조그만 못을 파고 연꽃을 심어 정우당(淨友塘)이라 하였다. 그 위 산기슭에 매화·대나무·소나무·국화를 심어 절우사(節友社)라 불렀다.

② 탁영담 못가에 커다란 바위가 마치 깎아 세운 듯 서 있으니, 그 위에 높고 평평한 대를 만들었더니 위는 하늘 아래는 물이었다. 솔개 날고 물고기 뛰는 강산의 훌륭한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이름을 천연대(天淵臺)라 하였다.

③ 때때로 몸이 가뿐하면 우주를 굽어보고 우러러보다가, 바위에 앉아 샘물 구경도 하고, 대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며, 좋은 경치 만나면 흥취가 절로 일어 한껏 즐겼다.

활동 1 활동지 1 — 퇴계의 경외 알아보기

퇴계 선생이 붙인 이름들을 찾고, 경외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Q1. 퇴계 선생이 자연에 붙인 이름들을 찾아 써봅시다.

정우당 (淨友塘)	절우사 (節友社)	천연대 (天淵臺)	천광운영대	암서헌

Q2. 퇴계 선생은 왜 자연에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자연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 —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 같다.

Q3. 이것을 경외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은?

자연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이름을 붙였다. 이는 자연을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므로 경외라 할 수 있다.

활동 1 경외의 의미 정리

삼가는 마음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는 마음.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조심하고 조용해지는 태도
함께 살아가는 존재	자연을 '이용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이해하는 시각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	자연에 이름을 붙이고 인격체로 여기듯,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연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삼가는 마음 = 경외

활동 2 활동지 2 — 도산서원 살펴보기



활동 2 도산서원 살펴보기

도산서원 누리집에 접속하여 각 공간의 이름과 역할을 찾아봅시다!

열정·정문	도산서당	농운정사
서원 입구와 식수 우물	퇴계 선생이 직접 설계한 강학 공간	제자들의 기숙사 (工자 평면 구조)

정우당	전교당	상덕사
연꽃 연못. 퇴계의 '깨끗한 벗'	서원의 핵심 강당	퇴계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

도산서원 누리집: www.andong.go.kr/dosanseowon

활동 2 가장 궁금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도산서원에서 경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장소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정우당 (淨友塘)	연꽃이 피는 연못. 퇴계 선생이 '깨끗한 벗'이라 부른 곳. 지금도 연꽃이 피는지 궁금하다.
천연대 (天淵臺)	하늘과 물 사이 바위 위 정자. 낙동강을 내려다보며 자연의 광대함을 느낄 수 있는 곳.
절우사 (節友社)	소나무·대나무·매화·국화의 뜰. 겨울에도 굳건한 4군자를 직접 만질 수 있는 곳.

활동 3 나만의 경외 체험 미션 만들기

도산서원에서 경외를 느낄 수 있는 장소 3곳을 고르고, 자연을 더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 체험 미션 예시

1분 침묵하기	바위나 나무에 손 얹고 느껴보기	하늘 올려다보기
퇴계 선생처럼 한 줄 시 쓰기	냄새·소리·촉감 기록하기	자연물 자세히 관찰하기

💡 활동을 계획할 때 구체적인 감각(보기·듣기·냄새·촉감)을 활용해 보세요!

정리

O / X 퀴즈

X

경외와 감탄은 같은 감정이다.

감탄은 즐거운 감동, 경외는 겸손해지는 숙연한 마음입니다.

X

퇴계 선생은 자연을 친숙하게 여기고 마음대로 사용했다.

퇴계 선생은 자연을 인격체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O

경외는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는 마음이다.

경외는 나보다 크고 오래된 존재 앞에서 느끼는 경건한 마음입니다.

정리

경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을 어떻게 대할까요?

경외의 마음

-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 자연을 '이용 대상'이 아닌 '벗'으로 여긴다
- 생태계를 보호하고 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 자연 앞에서 겸손하고 조화롭게 살아간다

💬 일상에서 경외와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도산서원에서
경외를 느껴봅시다!

안동시 초·중등 인문 인성 교육과정 | 안인(安仁)